

KDB DAEWOO DAILY

2012. 12. 5 (수)

코스피지수 (12/4)	1,935.18P(-4.84P)
코스닥지수 (12/4)	502.71P(+3.74P)
KOSPI200지수 12월물	254.90P(-1.10P)
중국상해종합지수 (12/4)	1,975.14P(+15.37P)
NIKKEI225지수 (12/4)	9,432.46P(-25.72P)
원/달러 환율	1,083.40(+0.30)
국고채 수익률 (3년)	2.84(0.00)
유가(WTI) (12/5 00:39)	88.51(-0.09)
국내주식형수익증권(12/3)	692,981억원(+306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12/3)	266,639억원(-286억원)
고객예탁금(12/3)	179,080억원(+11,719억원)
신용잔고(12/3)	42,925억원(-215억원)

기술적 시장분석

눈 진흙 위에 난 기러기의 발자국(雪泥鴻爪)!

주간 글로벌 마켓 네비게이션

지금 주목해야 할 차트 3가지

시분석

(요약) 업종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

기업분석

락앤락[매수] - 이헤미: 기지개 펴는 원조 중국 성장주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눈 진흙 위에 난 기러기의 발자국(雪泥鴻爪)!

12월 증시는 연말 소비특수로 인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1차적으로 60일선을 중심으로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60일선 돌파에 성공한다면 V자형 반등이 예상되지만, 실패한다면 역머리어깨형의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KOSPI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강화와 거래량 증가가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1,890~1,980p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섬유/의복, 제약, 기계, 전기전자(IT), 통신, 서비스(지주회사)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KOSPI, 60일선을 중심으로 한 살바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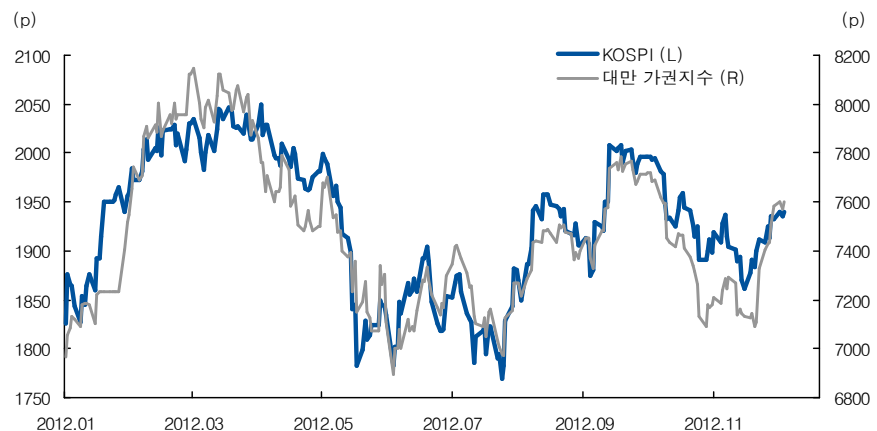
올해 증시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지만, 방향성 또한 찾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 복숭 때 시인인 소동파가 이야기한 ‘설니홍조(雪泥鴻爪)’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이는 기러기가 눈이 녹은 진창 위에 남긴 발톱 자국이라는 뜻이다. 얼마 안 가서 그 자국이 지워지고, 또 기러기가 날아간 방향을 알 수 없다는 말로 최근 증시의 방향성도 이와 같이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KOSPI의 단기 방향성은 수급선인 60일선(1,938p 내외) 돌파 및 안착에 달려있다. 현재 60일선을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일부 지표들의 개선세로 인해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또한 재정절벽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잡고 있다. 이번 주의 경우 7일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시장 동향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OSPI, 2012년엔 대만
가권지수와 높은 상관관계
보이고 있어

글로벌 증시를 보면 2012년 들어 KOSPI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만 가권지수이다. 두 지수는 연초 이후 연재까지 0.90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 대만 가권지수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증시부양 발언 이후 주요 이평선을 돌파하며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1. KOSPI와 대만 가권지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증시, 미 증시의 60일선에서 저항과 아시아권에서 인도증시의 강세에 주목

미 증시, 60일선에서 저항을 보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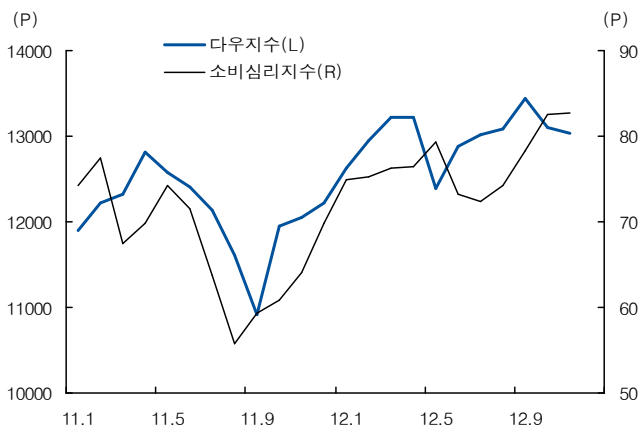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가 12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춤한 모습이다. 전일 미 증시의 주요 지수는 60일선의 저항으로 조정을 받았다. ISM 제조업 지수가 3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소비심리지표의 경우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어 위축된 투자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2>.

중국 상해종합지수, 수급상 문제로 조정 지속될 듯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0p를 하회한 후 좀처럼 반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선은 심리적 지지선이자 패턴상 '2중 바닥'에 해당하는 지수였는데, 이를 하회하자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그림3>.

기업실적의 불확실성, 부동산규제 등의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수급우려(연말 337억 주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영향이 큰 상황이다.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기업을 모아 둔 홍콩H지수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단기적으로

그림 2. 다우지수와 미국 소비심리지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H지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인도 SENSEX지수 주간차트



자료: stockchart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대만 가권지수 외국인 누적 순매수(2012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 SENSEX지수에 주목

조정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SENSEX지수는 11월 말 주요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환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엔 인도증시가 브릭스(BRICs, 브라질·인도·중국·러시아) 중 가장 유망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주요 저항선은 심리적 저항선인 20,000선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4>.

KOSPI, 단기적으로 1,890 ~ 1,980p에서의 움직임 예상

KOSPI, 60일선을 중심으로
방향성 나타날 듯

12월 증시는 연말 소비특수로 인해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월 중반 이후 움직임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 60일선을 중심으로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여전히 모멘텀, 주도주, 매수주체가 실종된 상황이다.

글로벌 증시에서 KOSPI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만증시가 지난 주부터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거래량이 주요 이유이다. KOSPI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강화와 거래량 증가가 필수적이다<그림5>.

KOSPI, V자 혹은
역머리어깨형으로 진행할 듯

KOSPI는 5일선, 60일선, 200일선 등 주요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상태다. 캔들차트의 움직이는 방향이 단기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모습이다. 60일선 돌파에 성공한다면 V자형 반등이 예상되지만, 실패한다면 역머리어깨형의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그림6>.

KOSPI, 1차 저항선은 1,965p
내외

현재 11월 7일 형성된 전 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1차 저항선은 올 8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형성된 고점인 1,965p 내외이다. 2차 저항선은 10월의 갭하락 전 지수인 1,980p 내외이다. 주요 지지선은 올 10월 말과 11월 초의 저점인 1,890p 내외이다. 단기적으로는 1,890~1,980p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섬유/의복, 제약, 기계, 전기전자(IT), 통신, 서비스(지주회사)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6. KOSPI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지금 주목해야 할 차트 3가지

연말까지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힌트를 얻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3가지 차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미국 제조업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기업의 투자지표가 소폭 반등하고 있고,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투자심리의 추가 급락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2) 중국 증시의 부진은 진행형이지만, 바닥을 확인한 원자재 지수에는 급격한 재고조정 과정의 마무리와 생산활동의 완전한 정상화가 투영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 3)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여전히 'Risk On' 트레이드를 향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Chart 1. 미국 기업 투자심리 및 지표

재정절벽에 따른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영향 미칠 전망

연말까지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합의에 이르더라도, '양당 구도'하의 미국 정치 특성상 막판까지 대치 국면을 지속하다 중국에 타격을 짓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계의 소비보다도 (상대적으로 투자 시계가 긴) 기업의 투자 심리가 더 크게 위축된다는 점이다.

가계의 소비심리에 비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더 크게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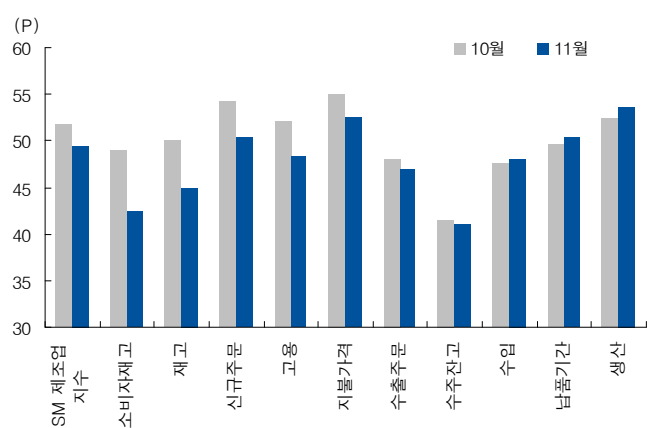
이는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소비심리와 주택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기업(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미국 ISM제조업지수 역시 49.5로 예상치(51.4)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며 2009년 7월(49.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규주문과 재고의 감소, 고용 둔화 등이 전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그림 1. 미국 ISM 제조업지수: 기준점 50 하회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 ISM 제조업지수 세부항목: 신규주문, 고용, 재고 부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SM 제조업지수의 추가 위축 가능성은 낮아

지수가 기준점(50)을 하회하기는 했으나, 추가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신규주문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재고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생산지수 역시 3개월 연속 개선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표에는 미국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과도한 재고 감소와 고용 둔화는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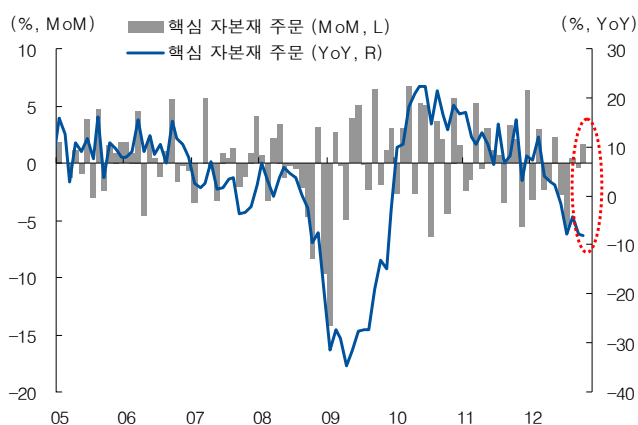
재정절벽 합의 도출 이후 제조업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이유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에 허리케인의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연말까지 미국 제조업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초 재정절벽 관련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 동안 이 연되었던 투자 수요와 함께 제조업 경기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반면 제조업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GDP 대비 비금융부문의 기업이익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금리 환경과 셰일가스 도입 등 미국 제조업체들이 경영하기 좋은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지표와 심리지표에서 나타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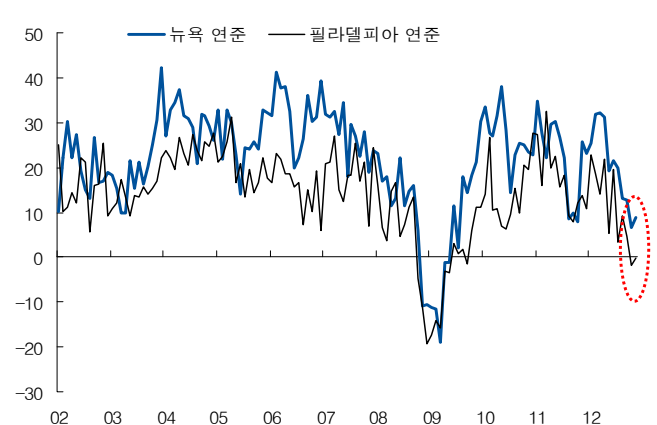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지표가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고,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투자심리의 추가 급락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핵심자본재 주문의 경우,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0월에 전월비 +1.7% 증가했다. 11월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준 등의 향후 6개월간 설비투자 계획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도, 투자심리는 미미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여전히 기업의 관망심리가 지배적이지만, 역으로 재정절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합의 도출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도 예상보다 빠르게 재개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그림 3. 미국 핵심 자본재 주문 추이: 10월 예상의 반등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 지역 연준의 향후 6개월간 설비투자 계획 서베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Chart 2. 중국 생산활동 정상화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

11월 PMI지수 3개월 연속 개선

여전히 중국 증시의 부진은 진행형이지만, 경제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견되고 있다. 11월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지수는 50.6을 기록, 3개월 연속 개선된 흐름을

재고조정은 완화된 반면 수요는 빠르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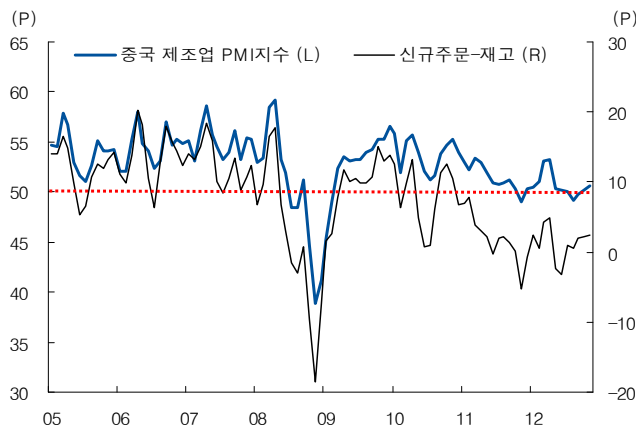
반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은 급격한 재고조정 마무리와 생산활동의 정상화 가능성 시사

이어갔고, HSBC 제조업 PMI지수도 50.5를 기록해 13개월 만에 기준선(50)을 상회했다.

특히 11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지수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산활동의 개선이다. 세부 항목 중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4p 상승한 52.5를 기록해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또한 산업생산 증가율에 선행하는 신규주문과 재고지수의 스프레드 역시 3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재고조정은 점차 완화된 반면 수요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향후 중국 제조업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을 방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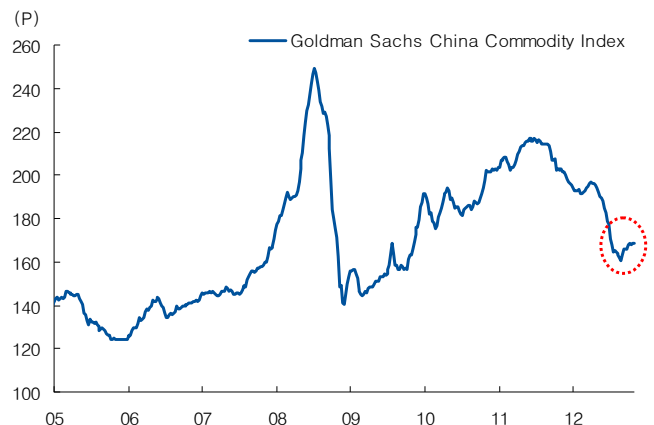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원자재 가격 추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생산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동반 하락했던 석탄과 철,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통계국 PMI의 하위 지수 중 원자재 재고지수가 8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닥을 확인한 원자재 지수에는 급격한 재고조정 과정의 마무리와 생산활동의 원만한 정상화가 투영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 5. 중국 제조업 PMI지수: 신규주문-재고 지수의 반등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중국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급격한 재고조정 마무리 방증



주: 현재 동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비중: 석탄 45.7%, 철강 41.5%, 구리 6.5%, 알루미늄 6.3%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유동성의 이머징마켓 순유입 지속: 여전히 Risk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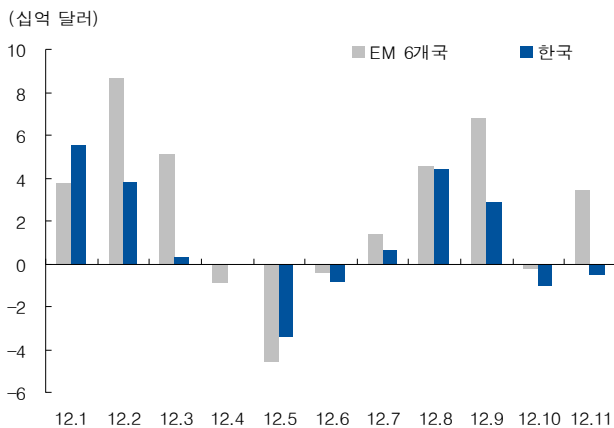
Chart 3.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11월 주요 이머징마켓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한국을 제외한 6개국(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남아공, 필리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11월 한 달 동안 34.5억 달러를 순매수한 반면, 한국에서는 약 5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유독 한국에 대해 매도세가 집중된 이유는 Vanguard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이머징마켓 전반적으로 유동성 흐름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EPFR(Emerging Portfolio.com)의 집계에 따르면 특히 Asia ex-Japan 펀드로 12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연중 순유입액이 (+)로 전환되었다.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주 달러의 추이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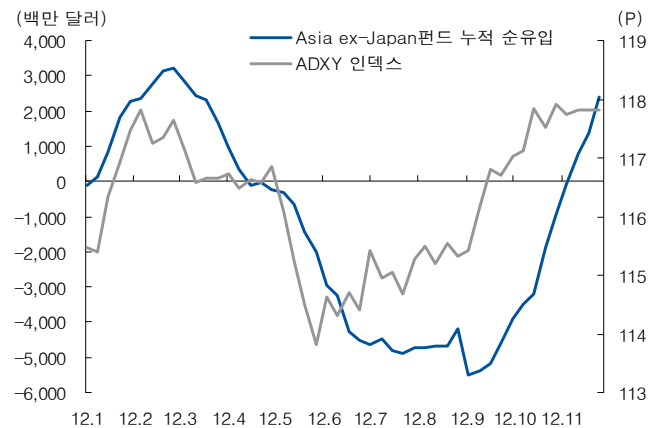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표는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인 호주 달러이다. 호주 달러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은 10월 말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석탄, 철광석 등을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투자경기의 Proxy로 삼을 수 있다. 즉, 호주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는 점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기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곡점마다 신흥국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온 호주 달러의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7. 주요 이머징마켓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한국만 sh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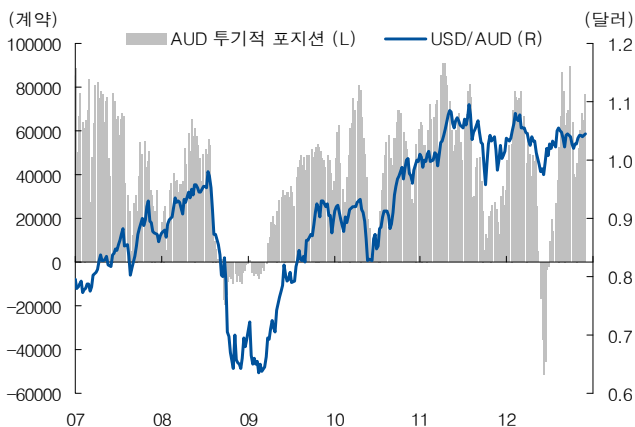
주: EM 6개국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남아공, 필리핀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Asia-ex Japan펀드 연간 누적 순유입액 (+)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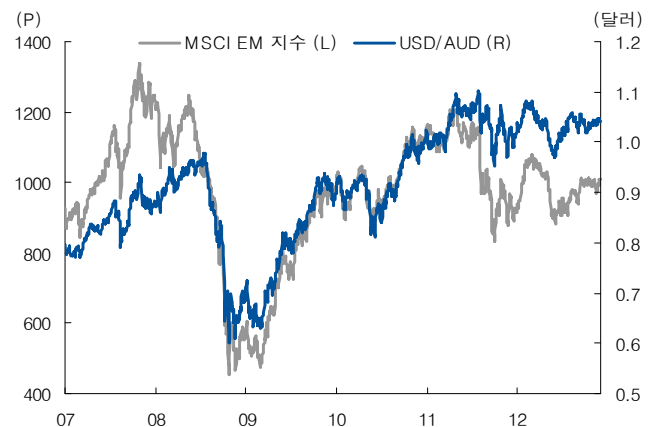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호주 달러 투기적 포지션 규모 급증: Risk On?!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호주 달러와 이머징마켓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요약) 업종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

업종 ETF는 현재 32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일 평균 거래대금은 31억 원 정도로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보다 정교화된 업종 ETF 지수 개발과 함께 새로운 업종 ETF들이 꾸준히 상장되고 있고 업종 ETF를 활용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수요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본 자료에서는 업종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을 분석했다. 업종 ETF는 NAV 대비 저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종가 괴리를 평균은 장중 괴리를 평균의 절반으로 축소된 반면 표준편차는 50%가량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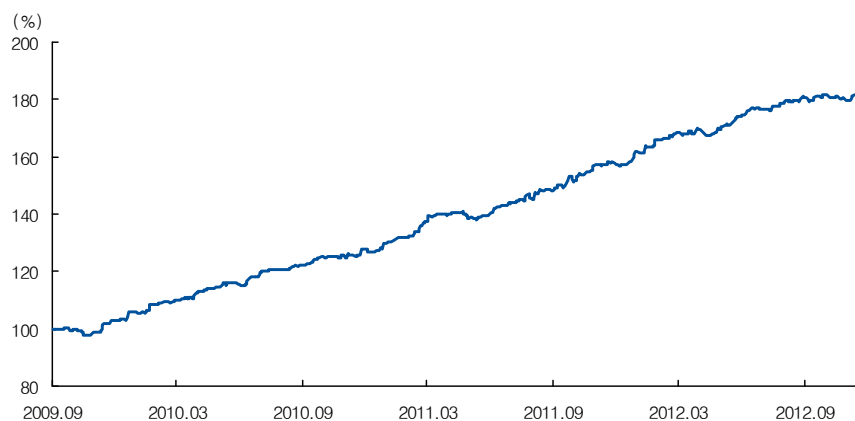
장중에 괴리율이 더 낮다는 것은 종가에 비해 ETF 저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차익거래 기회가 더욱 많다는 의미이므로 종가 데이터를 활용한 차익거래 분석을 장중 차익거래에 적용할 경우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업종 ETF의 괴리율 차이가 기준 괴리율을 벗어났을 때 고평가된 ETF를 매도하고 저평가된 ETF를 매수 후 괴리율이 정상(0)으로 돌아올 때 청산하면 거래비용(진입/청산 합계)을 0.3%로 가정했을 때 은행 ETF에서는 연 평균 +22.3% 수익률이 가능했고, 반도체 ETF는 +24.8%의 수익률을 보였다.

공매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버스 ETF를 활용할 경우 변동성은 커졌지만 진입 시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60% 이상으로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차익거래 포지션을 동일가중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경우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거래비용 0.3% 가정 시 연 +18.9%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 본 자료는 12월 5일 발간 예정인 '업종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 가능성 진단'을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바랍니다.

업종 ETF와 인버스 ETF의 괴리율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안정적 수익 누적 가능



주: 업종 ETF와 인버스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 그래프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업종 ETF 상장 및 거래 현황

업종 ETF 32개 상장
일 평균 거래대금은 31억 원

업종 ETF는 현재 32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채권형 ETF 다음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일 평균 거래대금은 31억 원 정도로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교화된 업종 ETF 지수 개발과 함께 새로운 업종 ETF들이 꾸준히 상장되고 있고 업종 ETF를 활용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수요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ETF 종류 별 거래대금 비중: 업종 ETF거래대금은 일 평균 31억 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0.56%

(단위: 백만 원, %)

ETF 구분	레버리지/인버스	주가 지수	채권	업종	그룹	원자재	스타일	해외지수	통화	기타	합계
거래대금	381,842	136,238	27,140	3,094	2,509	1,157	996	535	105	23	553,638
비중	68.97	24.61	4.90	0.56	0.45	0.21	0.18	0.10	0.02	0.00	100

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업종 ETF 상장 및 거래 현황: 32개 종목 상장. 조선/운송, 금융, 반도체, IT, 철강, 건설, 에너지/화학 등

(단위: 원, 백만 원, 배, 좌)

업종	종목명	종목코드	기초지수	운용사	상장일	현재가	일 거래대금	시가총액	승수	설정단위
조선/운송	KODEX 자동차	A091180	KRX 자동차	삼성	2006-06-27	20,685	214	61,021	10	50,000
	KODEX 조선	A102960	KRX 조선	삼성	2008-05-29	14,350	182	12,054	10	20,000
	TIGER 자동차	A157510	FnGuide 자동차 지수	미래에셋	2012-05-16	18,045	25	7,218	1	20,000
	아리랑 조선운송	A161530	FnGuide 조선운송+ 지수	한화	2012-08-29	4,240	14	17,808	1	50,000
	아리랑 자동차	A161520	FnGuide 자동차+ 지수	한화	2012-08-29	8,890	38	17,869	1	30,000
	KODEX 운송	A140710	KRX 운송	삼성	2011-04-26	5,045	9	4,541	5	100,000
	TIGER 조선운송	A139230	코스피 200 조선/운송	미래에셋	2011-04-06	5,025	3	3,015	10	20,000
IT	TIGER IT	A139260	코스피 200 정보통신	미래에셋	2011-04-06	13,535	239	41,146	10	20,000
	KOSEF IT	A091200	KRX 정보통신	우리	2006-06-27	12,865	6	9,777	10	20,000
반도체	TIGER 반도체	A091230	KRX 반도체	미래에셋	2006-06-27	15,515	177	48,717	10	20,000
	KODEX 반도체	A091160	KRX 반도체	삼성	2006-06-27	15,270	268	35,885	10	50,000
철강	KODEX 철강	A117680	KRX 철강	삼성	2009-10-30	10,320	165	14,448	5	70,000
	아리랑 철강금속	A161540	FnGuide 철강금속+ 지수	한화	2012-08-29	6,990	19	19,502	1	30,000
	TIGER 철강소재	A139240	코스피 200 철강/소재	미래에셋	2011-04-06	9,140	2	7,129	10	20,000
건설	KODEX 건설	A117700	KRX 건설	삼성	2009-10-30	4,455	126	15,147	5	100,000
	TIGER 건설기계	A139220	코스피 200 건설/기계	미래에셋	2011-04-06	4,910	5	3,633	10	20,000
에너지/화학	KODEX 에너지화학	A117460	KRX 에너지화학	삼성	2009-10-12	10,900	331	21,364	5	70,000
	TIGER 에너지화학	A139250	코스피 200 에너지/화학	미래에셋	2011-04-06	11,445	115	37,769	10	20,000
	아리랑 화학	A161550	FnGuide 화학+ 지수	한화	2012-08-29	5,885	14	19,126	1	50,000
	TIGER 화학	A157520	FnGuide 화학 지수	미래에셋	2012-05-16	9,815	6	4,711	1	20,000
금융	TIGER 은행	A091220	KRX 은행	미래에셋	2006-06-27	6,640	545	24,966	1	20,000
	KODEX 은행	A091170	KRX 은행	삼성	2006-06-27	6,585	203	13,499	10	50,000
	KODEX 증권	A102970	KRX 증권	삼성	2008-05-29	6,025	163	9,038	10	50,000
	TIGER 증권	A157500	FnGuide 증권 지수	미래에셋	2012-05-16	3,695	115	5,395	1	20,000
	TIGER 금융	A139270	코스피 200 금융	미래에셋	2011-04-06	6,315	15	4,294	10	20,000
	KODEX 보험	A140700	KRX 보험	삼성	2011-04-26	7,475	9	3,738	5	100,000
	KOSEF Banks	A091190	KRX 은행	우리	2006-06-27	6,630	1	2,387	10	20,000
기타	KODEX 소비재	A136280	핵심소비재	삼성	2010-12-07	16,100	22	4,830	2	50,000
	TIGER 소프트웨어	A157490	FnGuide 소프트웨어 지수	미래에셋	2012-05-16	4,415	13	4,768	1	20,000
	TIGER 제약&바이오	A143860	KRX 건강	미래에셋	2011-07-18	13,850	34	4,432	10	20,000
	TIGER 생활소비재	A152180	FnGuide 생활소비재 지수	미래에셋	2012-01-17	10,225	11	8,794	1	20,000
	TIGER 미디어통신	A098560	KRX 미디어통신	미래에셋	2007-09-07	7,755	4	6,980	10	20,000

주: 현재가와 시가총액은 12월 4일 종가 기준. 평균 거래대금은 60일 평균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ETF 차익거래 가능성 진단

업종 ETF는 저평가 경향
장중에 종가보다 저평가 현상
심화

본 자료에서는 업종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을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업종 ETF는 NAV 대비 저평가 경향을 나타낸다<그림 1 참조>. 동시호가를 제외한 장중 괴리율이 종가 괴리율보다 낮고 표준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종가 괴리율은 장중 괴리율의 절반 정도로 축소되는 반면 표준편차는 50% 가량 커진다.

장중에 괴리율이 더 낮다는 것은 종가에 비해 ETF 저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차익거래 기회가 더욱 많다는 의미이므로 종가 데이터를 활용한 차익거래 분석을 장중 차익거래에 적용할 경우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ETF 괴리율 평균 및 표준편차: 괴리율은 종가에 비해서 장중에 저평가 정도가 더 크고 표준편차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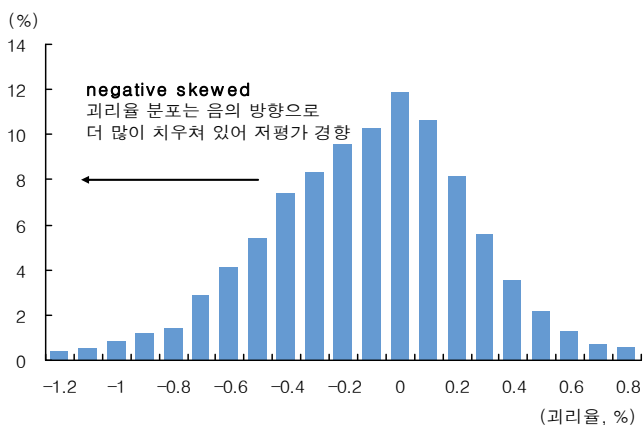
(단위: %)

괴리율	구분	KODEX 건설	KODEX 반도체	KODEX 에너지화학	KODEX 은행	KODEX 자동차	KODEX 조선	KODEX 증권	KODEX 철강	TIGER IT	TIGER 반도체	TIGER 에너지화학	TIGER 은행	TIGER 증권	아리랑 자동차
장중	평균	-0.22	-0.10	-0.13	-0.10	-0.20	-0.11	-0.16	-0.12	-0.15	-0.11	-0.09	-0.08	-0.11	-0.09
	표준편차	0.15	0.28	0.13	0.24	0.14	0.22	0.12	0.24	0.13	0.21	0.13	0.23	0.15	0.22
종가	평균	-0.11	-0.10	-0.11	-0.13	-0.10	-0.08	-0.09	-0.02	-0.12	0.04	-0.17	-0.03	-0.04	-0.03
	표준편차	0.29	0.24	0.23	0.25	0.21	0.23	0.22	0.22	0.27	0.23	0.41	0.47	0.42	0.17
장중-종가	평균	-0.11	0.00	-0.02	0.03	-0.10	-0.03	-0.07	-0.10	-0.03	-0.16	0.08	-0.05	-0.07	-0.05
	표준편차	0.32	0.34	0.24	0.35	0.25	0.32	0.22	0.26	0.29	0.30	0.43	0.49	0.43	0.29

주: 장중 괴리율은 동시 호가를 제외한 1분 단위 괴리율을 체결량으로 가중 평균

자료: CHECKExpert,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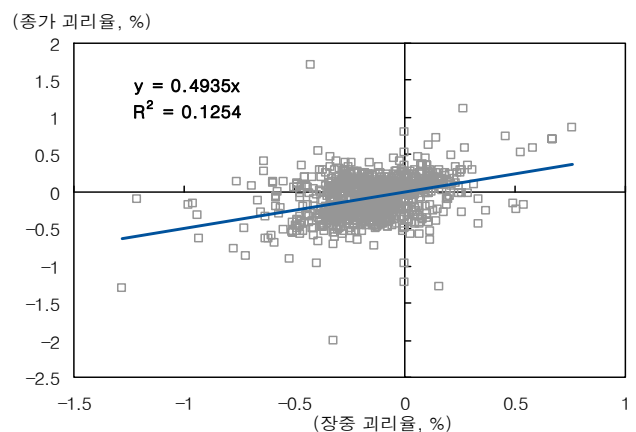
그림 1. 괴리율은 음의 방향으로 더 많이 분포해 저평가 경향 나타내



주: 2009년 1월 이후 업종 ETF 종가 기준 괴리율의 분포

자료: Quant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종가 괴리율은 장중 괴리율의 절반 정도로 축소되는 경향



주: 2012년9월6일부터 2012년11월30일까지 업종 ETF 괴리율 데이터

자료: CHECKExpert,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동일 업종 ETF 사이의 차익거래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업종 ETF간의 괴리차가 발생할 경우 NAV로 수렴이 보장되므로 안정적인 차익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동일 업종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은행과 반도체 ETF 두 가지이다.

거래비용 0.3% 가정 시
은행 ETF는 연 22.3%
반도체 ETF는 연 24.8%

두 ETF의 괴리율 차이가 기준 괴리율을 벗어났을 때 고평가된 ETF를 매도하고 저평가된 ETF를 매수해서 차익거래에 진입하고 괴리율이 정상(0)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청산한다. 진입 기준 괴리율 $\pm 0.4\%$ 와 거래비용(진입/청산 합계) 0.3%를 가정하면 은행 ETF에서는 연 평균 22.3% 수익률이 가능했고, 반도체 ETF는 24.8%의 수익률을 보였다.

표 4. 은행 ETF 사이의 차익거래 수익률

(단위: %)

수익률(연율)		거래비용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진입 괴리율 (%)	0.1	40.0	35.5	31.0	26.5	22.0	17.6	13.1	8.6	4.1	-0.4
	0.2	34.6	31.2	27.9	24.5	21.2	17.8	14.5	11.1	7.8	4.4
	0.3	30.5	27.9	25.3	22.7	20.1	17.5	14.9	12.3	9.7	7.0
	0.4	26.3	24.3	22.3	20.3	18.4	16.4	14.4	12.4	10.4	8.4
	0.5	22.1	20.6	19.1	17.5	16.0	14.5	13.0	11.5	10.0	8.4

주: 1) 2006년 6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3일까지 KODEX은행과 TIGER은행 ETF 증가 데이터 이용

2) 괴리율 차이(=KODEX은행의 NAV대비 괴리율 - TIGER은행의 NAV대비 괴리율)가 진입 괴리율 이상 벌어지면 고평가된 ETF 매도하고 저평가된 ETF매수

3) 거래비용은 진입/청산 시 수수료와 시장충격비용 등을 포함

4) 진입 포지션이 없을 경우 CD금리 수익률 가정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5. 반도체 ETF 사이의 차익거래 수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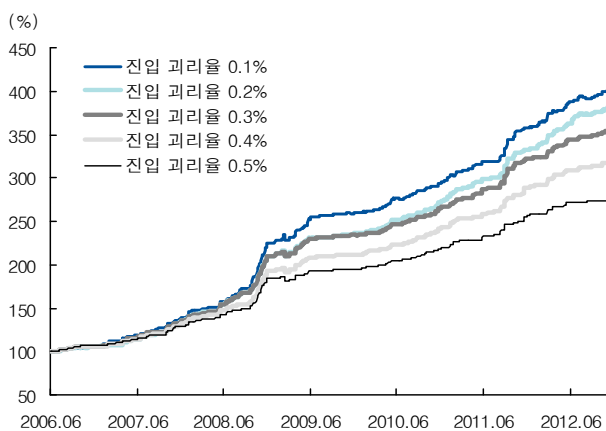
수익률(연율)		거래비용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진입 괴리율(%)	0.1	48.0	43.7	39.4	35.1	30.8	26.4	22.1	17.8	13.5	9.2
	0.2	38.8	35.7	32.6	29.6	26.5	23.5	20.4	17.3	14.3	11.2
	0.3	33.6	31.5	29.3	27.2	25.0	22.9	20.7	18.6	16.4	14.3
	0.4	28.2	26.5	24.8	23.1	21.4	19.7	18.0	16.3	14.6	12.9
	0.5	20.8	19.6	18.4	17.2	16.0	14.8	13.7	12.5	11.3	10.1

주: 1) 2006년 6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3일까지 KODEX반도체와 TIGER반도체 ETF 증가 데이터 이용

2) 괴리율 차이 = KODEX반도체의 NAV대비 괴리율 - TIGER반도체의 NAV대비 괴리율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진입 괴리율에 따른 은행 ETF간 차익거래 누적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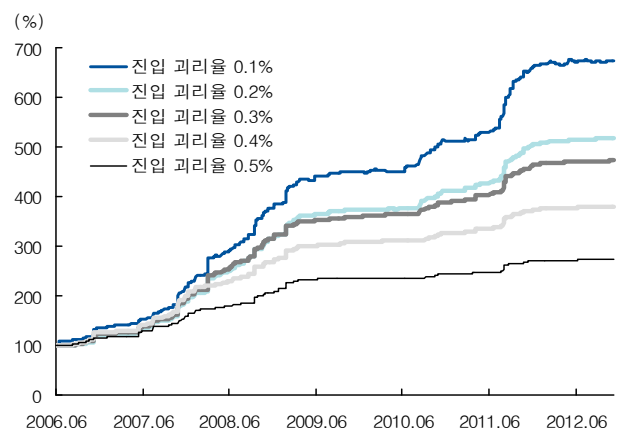


주: 1) 2006년 6월 27일을 100%로 했을 때 진입 괴리율에 따른 누적수익률

2) 진입/청산 거래비용 0.5% 가정. 진입 포지션이 없을 경우 CD수익률 가정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진입 괴리율에 따른 반도체 ETF간 차익거래 누적 수익률



주: 1) 2006년 6월 27일을 100%로 했을 때 진입 괴리율에 따른 누적수익률

2) 진입/청산 거래비용 0.5% 가정. 진입 포지션이 없을 경우 CD수익률 가정

자료: Quanti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공매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인버스 ETF 활용

승률은 60% 이상으로 1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 시 변동성 크게 감소

업종 ETF와 인버스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

앞서 동일 업종 ETF간의 차익거래에서는 고평가된 ETF를 공매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매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버스 ETF 활용을 검토해 보았다. 업종 ETF의 베타(beta)에 해당하는 인버스 ETF를 동시에 매수할 경우 엄밀하지는 않지만 이론상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실제 업종 ETF 거래량 상위 10종목에 대해서 인버스 ETF와의 차익거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변동성은 커졌지만 진입 시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60% 이상으로 의미 있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차익거래를 동일가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거래비용 0.3% 가정 시 연 18.9%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표 6. 업종 ETF와 인버스 ETF 포트폴리오 수익률 분석: 진입/청산 거래비용 0.3% 가정 시 TIGER 은행 수익률 26.2%, 승률 71.4%

종목명	종목코드	수익률 (연율, %)	평균/표준편차 (연율)	1회 진입/청산 시 수익률 (%)			승률 (%)	포지션 유지 기간 (일)	포지션 진입 기간 비율 (%)
				승	패	평균			
TIGER 은행	A091220	26.20	2.07	1.47	-1.39	0.64	71.4	3.0	45.2
KODEX 에너지화학	A117460	20.75	1.66	1.63	-1.58	0.55	66.1	2.5	34.8
KODEX 반도체	A091160	9.06	0.88	1.30	-1.44	0.23	60.6	2.7	34.7
TIGER IT	A139260	11.48	1.26	1.19	-1.37	0.32	66.0	2.7	35.3
KODEX 자동차	A091180	17.50	1.06	2.22	-1.68	0.52	55.4	3.2	39.7
KODEX 은행	A091170	13.13	1.13	1.50	-1.69	0.41	66.0	4.5	42.7
KODEX 조선	A102960	15.51	0.82	2.49	-2.52	0.50	60.4	2.9	32.1
TIGER 반도체	A091230	17.59	1.49	1.39	-1.24	0.44	63.9	2.5	34.5
KODEX 철강	A117680	11.65	1.18	1.25	-1.51	0.32	65.7	2.8	32.7
KODEX 증권	A102970	10.14	0.95	1.38	-1.35	0.30	60.6	3.3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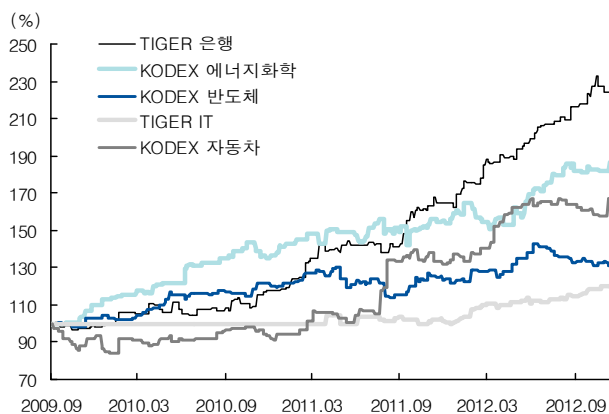
주: 1) 업종 ETF과 인버스 ETF 과리율의 합이 -0.4%를 하회할 경우 업종 ETF와 인버스 ETF를 동시에 매수 후 과리율이 0보다 커지는 시점에 청산

2) 인버스 ETF 매수 금액 = 업종 ETF beta x 업종 ETF 매수 금액

3) 거래비용은 진입/청산 합계 0.3% 가정

자료: Quant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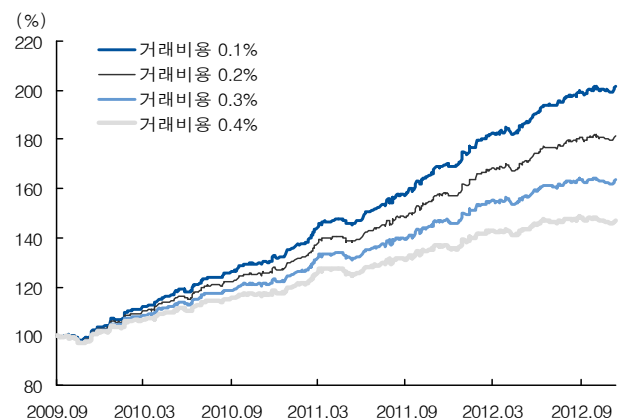
그림 5. 수익률의 진입 과리율에 대한 민감도는 크지 않아



주: 진입 과리율은 0.4%, 진입/청산 왕복 거래비용은 0.3% 가정

자료: Quant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거래비용 +0.1% 증가 시 연평균 수익률 -3.32% 감소



주: 거래대금 상위 10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자료: Quantwis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락앤락 (115390)

기지가 펴는 원조 중국 성장주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12M)	30,000
현재주가(12/12/04,원)	24,600
상승여력(%)	22.0
EPS 성장률(12F,%)	19.5
MKT EPS 성장률(12F,%)	9.5
P/E(12F,x)	21.1
MKT P/E(12F,x)	10.4
KOSPI	1,935.18
시가총액(십억원)	1,353
발행주식수(백만주)	55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485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
배당수익률(12F,%)	0.8
유동주식비율(%)	34.8
52주 최저가(원)	20,000
52주 최고가(원)	40,350
베타(12M,일간수익률)	0.81
주가변동성(12M daily,%,SD)	2.6
외국인 보유비중(%)	6.4
주요주주	
김준일 외 23인(64.09%)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5.5	-21.3	-35.6
상대주가	14.6	-29.8	-36.6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000원 유지

락앤락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000원을 유지한다. 락앤락의 주가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de-rating 되어왔다. 그 이유는 ① 외형 확대 및 국내 매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주에 대한 희소성 증가로 과거 대비 valuation premium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락앤락의 핵심인 중국 성장률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valuation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② 지속적인 일회성비용 발생도 de-rating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일회성비용은 주로 해외 자회사 영업 상황에 대한 접근성 부족, 재고자산 관리 역량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재고관리를 위한 SCM (공급망관리)를 도입했고, 해외 자회사와의 ERP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도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중국 성장의 핵심인 브랜드 가치 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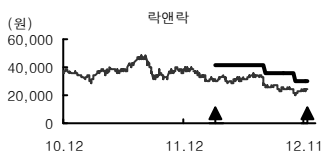
락앤락의 중국 매출액은 2015년까지 연평균 21.7% 성장할 전망이다. 1선 도시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밀폐용기/차통에서 유리 밀폐용기/보온병으로의 trading up이 이루어지고, 올해 성장률이 둔화되었던 2~3선 도시는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라 성장성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락앤락 중국 성장의 핵심은 브랜드이다. **락앤락은 오리온과 더불어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중국 내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통망을 중개상 없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실적 회복을 기대한다

4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4.2%, 9.8% 증가하고, 순이익은 6.6% 감소에 그쳐 우려했던 earnings shock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고감손실이 영업외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순이익 전망치 130억원(가이던스(123억원) 및 컨센서스(113억원)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는 기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환관련이익이 약 2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386	80	20.6	66	1,304	97	-55	23.3	27.3	4.7	17.7
12/11	476	73	15.4	51	975	97	-99	10.6	39.3	3.7	20.6
12/12F	514	83	16.2	64	1,165	107	-11	11.1	21.1	2.2	12.0
12/13F	564	98	17.3	76	1,373	133	31	12.2	17.9	2.1	9.5
12/14F	644	114	17.7	87	1,590	151	41	13.0	15.5	1.9	8.1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락앤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1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3년 매출액은 9.8%, 영업이익 17.5% 증가해 실적 반등에 성공할 전망이다. 국내 매출은 부진을 이어가지만, 중국 매출액이 17.5% (위안화 기준 22.0%) 성장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1.1%p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2년 수익성을 훼손했던 일회성 요인(기계설비 이전에 따른 가동률 하락, 체화재고 할인판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표 1. 락앤락의 분기별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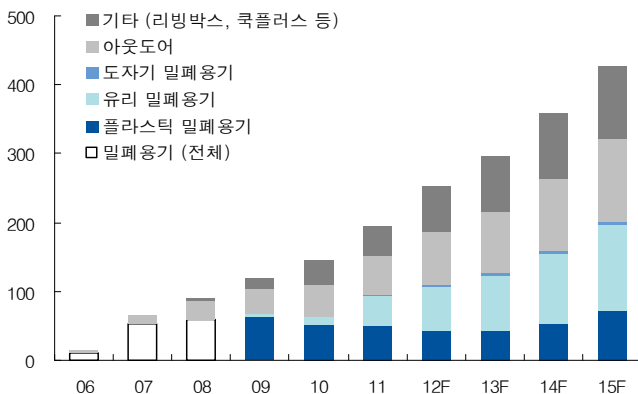
(십억원, %)

	2012F					2013F				
	1Q	2Q	3Q	4QF	연간	1QF	2QF	3QF	4QF	연간
매출액	124.1	136.4	128.9	124.6	514.1	136.7	147.8	143.0	136.8	564.2
영업이익	21.3	20.0	21.4	20.3	83.0	22.0	26.2	23.6	25.9	97.6
세전이익	22.4	20.7	21.7	16.9	81.7	21.2	27.0	24.4	25.4	98.1
순이익	17.8	16.1	17.2	13.0	64.1	16.3	20.8	18.9	19.5	75.5
매출액증가율	14.5	8.9	5.0	4.2	8.0	10.1	8.3	10.9	9.8	9.8
영업이익증가율	47.7	28.1	-13.0	9.8	13.5	3.1	30.7	10.2	27.3	17.5
세전이익증가율	40.9	37.3	0.5	-9.9	14.6	-5.4	30.4	12.7	50.2	20.0
순이익증가율	47.8	88.3	6.7	-6.6	26.6	-7.9	29.0	9.7	50.4	17.9
영업이익률	17.2	14.7	16.6	16.3	16.2	16.1	17.7	16.5	18.9	17.3
순이익률	14.3	11.8	13.3	10.4	12.5	12.0	14.1	13.2	14.3	13.4

자료: 락앤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그림 1. 중국 품목별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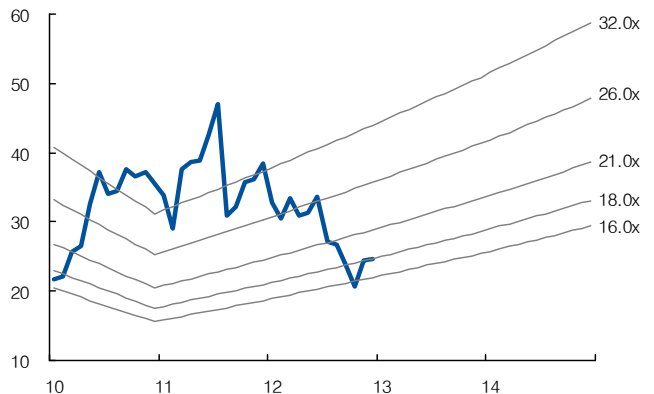
(십억원)



자료: 락앤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락앤락의 PER 추이

(천원)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933.8 / 5일 7098.7)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951.4 / 5일 794.8)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서비스업	225.9	161.1	전기전자	-692.9	37.7	전기전자	741.3	-4.7	철강금속	-85.2	-279.2
전기가스	64.0	-207.2	금융업	-182.3	595.7	통신업	104.0	7.4	전기가스	-45.4	89.4
유통업	53.0	273.5	화학	-96.9	1,539.1	금융업	93.5	16.8	유통업	-16.0	-320.8
의약품	38.8	-97.8	운수장비	-89.9	4,246.8	화학	57.7	-23.7	은행	-8.0	-43.1
증권	38.7	284.9	보험업	-76.8	-49.6	보험업	55.9	38.8	섬유의복	-5.9	47.0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NHN	137.4	-88.0	삼성전자	-445.9	1,373.6	삼성전자	445.1	-1,800.4	현대모비스	-173.6	-198.0
한국타이어	90.4	212.9	SK하이닉스	-139.3	-521.7	SK하이닉스	124.5	-157.2	LG생활건강	-91.8	38.0
KODEX레버리지	74.8	2,032.1	LG전자	-114.8	-365.0	호남석유	74.1	206.4	POSCO	-79.2	-182.3
삼성전기	73.8	313.1	호남석유	-95.3	16.2	LG디스플레이	64.3	376.9	한국타이어	-74.7	-66.2
현대모비스	54.6	1,027.3	기아차	-76.1	1,097.4	현대중공업	64.2	-112.0	엔씨소프트	-67.3	57.3
삼성물산	52.0	197.6	하나금융지주	-64.7	-110.9	삼성SDI	58.7	236.5	NHN	-46.1	-90.3
LG상사	46.8	67.8	삼성SDI	-60.6	-42.4	KT	55.4	150.3	S-Oil	-42.0	-26.2
CJ	45.4	-85.7	SK케미칼	-59.5	-115.3	LG화학	47.7	-167.0	CJ대한통운	-38.5	-11.2
삼성엔지니어링	39.2	224.4	LG화학	-51.0	606.1	현대건설	46.9	265.2	KT&G	-37.6	123.5
한국가스공사	37.8	-158.4	현대차	-46.4	1,451.2	삼성생명	43.1	-33.2	삼성물산	-34.7	-83.5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65.7 / 5일 -590.4)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319.0 / 5일 -85.9)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오락.문화	75.2	-86.0	IT부품	-23.7	-11.4	IT부품	102.8	28.0	제약	-13.1	-124.8
반도체	31.9	-11.2	방송서비스	-20.7	28.6	인터넷	29.9	-2.6	운송장비.부품	-2.4	-17.9
소프트웨어	25.7	5.9	금속	-13.3	80.2	의료.정밀기기	25.2	92.0	기타제조	-1.5	2.1
디지털컨텐츠	24.8	-516.9	통신방송	-10.3	46.6	디지털컨텐츠	25.0	-98.9	정보기기	-0.2	3.1
제약	14.8	13.9	화학	-9.8	-43.3	반도체	24.8	14.1	섬유.의류	-0.1	-2.2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서울반도체	41.3	43.3	이오텍	-25.4	-12.3	멜파스	41.2	-6.4	셀트리온	-30.1	-204.5
와이저엔터테인먼트	31.4	63.8	GS홈쇼핑	-18.0	14.1	다음	30.5	-1.6	루멘스	-7.8	-0.5
파라다이스	24.8	-169.5	파트론	-15.7	-79.0	파트론	14.4	22.2	EG	-6.5	-40.4
멜파스	23.2	-34.2	씨젠	-14.2	-32.0	게임빌	13.8	0.3	와이저엔터테인먼트	-4.7	-19.0
덕산하이메탈	17.9	48.4	AP시스템	-12.8	-71.0	컴투스	13.4	-97.3	아버텍	-4.5	5.0
셀트리온	16.6	97.3	파워로직스	-11.1	-2.8	뉴웍스	12.8	56.1	오스템임플란트	-3.8	45.1
컴투스	16.2	-327.7	태양기전	-8.7	-9.2	CJ오쇼핑	10.3	10.2	한글과컴퓨터	-3.3	17.0
에스엠	15.3	11.6	평화정공	-8.3	24.8	안랩	9.8	-69.5	비에이치	-3.0	8.5
이노칩	13.6	16.1	잉크테크	-7.5	-2.9	성광벤드	9.6	19.7	옵트론텍	-2.8	1.1
씨티씨바이오	12.5	0.0	바이오랜드	-6.9	-0.2	솔브레인	9.1	21.7	성우하이텍	-2.7	-4.3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NHN	7,005.2	삼성전자	-23,427.3	NHN	6,862.5	호남석유	-4,759.3
삼성전기	5,833.3	KINDEX200	-12,282.8	삼성전자	6,730.7	중국원양자원	-3,180.0
한국타이어	4,456.8	SK하이닉스	-11,357.8	삼성물산	4,151.9	신한지주	-2,754.1
LG상사	3,079.3	LG전자	-8,693.1	SK하이닉스	2,752.6	기아차	-2,695.1
한국가스공사	2,619.9	하나금융지주	-6,485.9	금호석유	2,712.3	현대차2우B	-2,636.5
대우조선해양	2,573.6	현대위아	-3,172.5	한국타이어	2,505.3	하나금융지주	-2,264.2
대림산업	2,408.4	기아차	-2,888.8	현대모비스	2,027.8	LG화학	-2,146.3
TIGER 200	2,176.8	현대제철	-2,599.4	현대위아	1,637.5	LG유플러스	-1,401.8
현대홈쇼핑	2,156.7	현대해상	-2,121.9	롯데쇼핑	1,488.2	SK케미칼	-1,289.6
삼성물산	1,907.7	LG화학	-2,105.7	한국가스공사	1,388.2	삼성테크윈	-1,229.7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현대모비스	1,547.1	LG전자	-1,077.3	현대모비스	4,418.5	삼성SDI	-3,428.1
KT	996.1	LG화학	-1,028.8	금호석유	4,286.7	삼성전자	-3,055.7
아모레퍼시픽	991.8	두산중공업	-813.0	CJ	4,114.3	삼성전기	-2,883.2
엔씨소프트	715.9	SK텔레콤	-775.0	LG디스플레이	3,346.6	S-Oil	-2,586.6
S-Oil	494.0	NHN	-761.8	POSCO	3,242.4	KT&G	-2,384.6
롯데쇼핑	449.3	GS건설	-755.2	현대위아	2,463.7	현대건설	-2,055.4
SK C&C	412.3	SK하이닉스	-659.8	SK하이닉스	2,129.4	SK이노베이션	-1,857.0
고려아연	378.8	기아차	-608.6	한국타이어	1,631.5	SK케미칼	-1,789.7
OCI	328.5	삼성전기	-398.6	LG생활건강	1,564.3	기아차	-1,643.8
현대해상	276.5	하나금융지주	-376.3	한국가스공사	1,512.1	LS	-1,612.4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KODEX 레버리지	2,020.4	7,482.5	LG전자	3,066.7	11,482.8
삼성전기	3,520.0	7,376.3	현대제철	661.3	3,977.1
LG상사	386.2	4,678.5	중국원양자원	665.1	3,873.3
CJ	1,136.7	4,541.2	S-Oil	4,201.3	3,561.8
삼성엔지니어링	2,016.5	3,923.8	신한지주	1,334.3	3,099.8
금호석유	774.9	3,067.6	KT&G	3,763.4	2,942.9
GS	639.3	2,107.3	우리금융	263.7	2,752.2
아모레퍼시픽	2,003.8	1,591.6	현대해상	284.5	2,689.5
LG디스플레이	6,431.7	1,444.4	제일기획	1,915.8	1,585.1
삼성생명	4,313.1	337.0	GS건설	1,011.6	1,466.4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에스엠	2,196.4	이옴텍	-862.8	멜파스	1,601.4	파트론	-1,083.6
서울반도체	1,881.5	GS홈쇼핑	-851.1	포스코엠텍	1,567.1	나노신소재	-541.0
덕산하이메탈	1,796.7	포스코엠텍	-828.3	이노칩	1,295.4	태광	-469.7
골프존	1,082.2	네패스	-708.5	에스엠	914.7	웹젠	-449.2
이엘케이	1,008.0	바이오랜드	-608.4	컴투스	889.1	이엘케이	-382.0
에스에프에이	759.1	CJ오쇼핑	-603.9	젬박스	886.2	실리콘웍스	-371.5
디스플레이텍	682.9	KH바텍	-597.2	셀트리온	807.8	매일유업	-366.1
씨티씨바이오	668.2	태양기전	-549.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89.4	심텍	-353.7
테라세미콘	595.2	리노공업	-445.0	덕산하이메탈	737.3	게임빌	-332.0
성우하이텍	585.2	고영	-419.3	인터플렉스	691.1	서부T&D	-312.2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컴투스	447.2	이옴텍	-473.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609.8	씨젠	-1,225.7
매일유업	310.6	에스엠	-366.3	게임빌	994.2	메디톡스	-585.7
멜파스	217.1	KG이니시스	-343.1	이엘케이	690.9	골프존	-578.6
위메이드	172.3	미래나노텍	-274.7	서울반도체	580.8	인터플렉스	-502.8
아이옴	149.7	디지털옵틱	-200.5	CJ오쇼핑	544.4	로만손	-400.4
서울반도체	113.0	KH바텍	-115.3	파라다이스	487.7	포스코엠텍	-353.5
SK브로드밴드	110.6	오스코텍	-111.6	코오롱생명과학	467.3	멜파스	-320.1
파라다이스	107.0	인터파크	-94.5	에스맥	400.8	컴투스	-308.6
옵트론텍	102.1	엘엠에스	-90.4	씨티씨바이오	388.3	GS홈쇼핑	-268.4
고영	84.1	성우하이텍	-56.8	네패스	374.1	KH바텍	-259.0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파라다이스	275.0	2,480.2	파워로직스	33.0	1,106.6
멜파스	4,121.1	2,317.7	평화정공	125.0	826.2
덕산하이메탈	304.8	1,785.5	옵트론텍	283.5	657.2
컴투스	1,341.9	1,618.6	나노신소재	15.2	434.3
이노칩	285.0	1,362.3	미래나노텍	156.9	342.3
씨티씨바이오	275.8	1,248.5	심텍	159.3	328.2
이엘케이	165.1	1,173.7	인터플렉스	158.7	276.3
에스에프에이	907.7	1,015.4	비에이치	304.1	184.2
게임빌	1,384.6	716.1	오스템임플란트	377.6	137.6
뉴웍스	1,277.4	249.3	루멘스	778.5	82.6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212	1303	1306	KSPGCH3S
기 준 가 격	255.57	256.00	255.20	256.75	-0.90
시 가	254.50	255.00	254.20	256.75	-0.90
고 가	255.30	255.55	254.50	256.75	-0.90
저 가	253.72	254.05	253.20	256.75	-0.95
종 가	254.83	254.90	254.00	256.75	-0.95
전 일 대 비	-0.74	-1.10	-1.20	-	-0.05
이 른 가 격	-	255.03	254.22	255.79	-0.81
총 약 정 수 량 *	49,497	140,672	385	-	807
총 약 정 금 액 **	2,083,494	17,917,176	48,854	-	205,258
미 결 제 약 정	-	103014 (-3203)	10642 (54)	1162 (0)	-
배 당 지 수 ***	2.85% (CD금리)	0.00	2.62	2.86	-
반 응 배 수		0.95	0.82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314			
전 일 대 비		-0.313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GCH3S : 12월물과 3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61,786	40,836	32,862	105	1,861	517	1,602	1,488
	매 도	64,727	38,979	33,020	96	1,436	549	1,274	976
	비 중	44.8%	28.3%	23.4%	0.1%	1.2%	0.4%	1.0%	0.9%
순 매 수 누 적	전 일	-2,941	1,857	-158	9	425	-32	328	512
	누 적	-6,233	2,988	1,713	-445	3,348	-1,820	499	-49
매 매 편 향 강 도		-2.32%	2.33%	-0.24%	4.48%	12.89%	-3.00%	11.40%	20.78%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90	-0.35%	7	184	0.00%	NAV (ETF-NAV)%	25,543	25,582
KODEX200	-70	-0.27%	1,570	40,006	5.02%		-0.23%	-0.24%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2%	0.01%
증가/100	254.85	255.20	254.72	254.90	254.90	설정주수	0	0
eff.delta	1.22	0.95	1.38	1.49	1.41	환매주수	300	300
diff/basis	0.01%	0.15%	-0.04%	0.07	0.07	상장주수	167700	1677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 표	0.153	콜 평균	0.143	풋 평균	0.165	역사적 (5일)	11.6	역사적 (20일)	12.2
내 재 변 동 성									
월 물 행 사 가 격		1212					01301		
		260.0	257.5	255.0	252.5	250.0	257.5	255.0	252.5
Call	가 격	0.72	1.38	2.49	3.95	5.85	2.77	3.80	5.00
	전 일 대 비	-0.36	-0.56	-0.76	-0.90	-0.90	-0.43	-0.50	-0.65
	내 재 변 동 성	14.40	14.30	14.70	14.80	15.60	14.30	14.50	14.70
	거 래 량	208,974	149,713	116,498	11,450	4,310	1,240	575	502
	미 결 제	34,365	22,609	22,271	16,054	14,786	1,843	2,105	1,654
Put	가 격	5.80	4.05	2.59	1.60	0.92	7.25	5.80	4.50
	전 일 대 비	0.60	0.55	0.28	0.16	0.06	0.50	0.50	0.35
	내 재 변 동 성	15.30	15.60	15.50	16.00	16.40	14.20	14.50	14.60
	거 래 량	3,872	8,395	94,195	126,715	175,211	52	325	345
	미 결 제	3,174	3,503	13,349	13,614	24,394	256	365	2,208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391,998	274,133	321,816	940	659	140	3,595	80
	매 도	390,862	264,296	332,826	935	623	105	3,672	47
	비 중	39.4%	27.1%	33.0%	0.1%	0.1%	0.0%	0.4%	0.0%
순매수 누적	전 일	1,136	9,837	-11,010	5	36	35	-77	33
	누 적	15,082	37,744	-49,693	-9	-1,283	-40	-1,732	-66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457,268	252,250	208,175	0	707	110	67	5,456
	매 도	458,477	252,924	207,392	0	707	100	99	4,334
	비 중	49.6%	27.3%	22.5%	0.0%	0.1%	0.0%	0.0%	0.5%
순매수 누적	전 일	-1,209	-674	783	0	0	10	-32	1,122
	누 적	20,022	35,554	-51,489	0	30	-619	-171	-3,327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인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 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 익 거 래 잔 고 (백 만 원)	최 근 월 물	6,013,435	10,378,456	10,440,273	6,010,858	-	-	-	-
	기 타	-	-	-	-	-	-	-	-
	합 계	6,013,435	10,378,456	10,440,273	6,010,858	0	0	0	0
		프로그래밍 매도				프로그래밍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 로 그 램 매 매 동 향 (백 만 원)	차 익	1,416	0.49	87,112	3.10	747	0.26	44,918	1.60
	비 차 익	12,487	4.30	448,045	15.92	19,652	6.77	582,860	20.72
	합 계	13,904	4.79	535,158	19.02	20,399	7.03	627,778	22.31
베 이 시 스 수 준		0.575	0.475	0.375	0.275	0.175	0.075	-0.025	-0.125
차 익 성 순 매 수		6813	13810	9371	-2110	-11282	-4873	-2171	0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12/04 (화)	12/03 (월)	11/30 (금)	11/29 (목)	11/28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35.18	1,940.02	1,932.90	1,934.85	1,912.78
	이동평균	5일	1,931.15	1,929.15	1,922.85	1,918.53	1,911.46
		20일	1,906.26	1,905.91	1,904.32	1,903.61	1,901.79
		60일	1,938.10	1,938.00	1,937.02	1,936.04	1,935.58
	이격도	20일	101.52	101.79	101.50	101.64	100.58
		60일	99.85	100.10	99.79	99.94	98.82
	거래량		294,802	314,887	337,273	388,790	408,907
	거래대금		29,300.9	33,912.2	45,372.0	48,559.8	39,105.2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0.83	0.88	0.95	1.09	1.15
	거래대금 회전율		0.26	0.30	0.41	0.43	0.35
	심리지표		50	60	60	60	50
	ADR		85.21	86.21	88.02	83.17	89.11
	이동평균 20일		83.48	83.20	82.77	82.68	82.09
	VR		67.45	83.93	88.97	88.85	89.99
코스닥시장			12/04 (화)	12/03 (월)	11/30 (금)	11/29 (목)	11/28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02.71	498.97	499.37	496.73	494.48
	이동평균	5일	498.45	496.64	496.09	495.98	496.04
		20일	501.63	502.37	503.18	503.88	504.49
		60일	515.38	515.51	515.64	515.74	515.92
	이격도	20일	100.21	99.32	99.24	98.58	98.02
		60일	97.54	96.79	96.84	96.31	95.84
	거래량		353,742	350,223	368,975	450,374	439,005
	거래대금		16,677.5	16,257.6	17,003.9	18,127.1	17,274.0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72	1.67	1.76	2.15	2.09
	거래대금 회전율		1.52	1.49	1.56	1.67	1.59
	심리지표		60	60	70	60	50
	ADR		82.73	83.90	86.08	84.00	88.80
	이동평균 20일		82.78	82.65	82.36	82.35	81.85
	VR		125.15	128.04	155.26	155.86	155.69
자금지표			12/04 (화)	12/03 (월)	11/30 (금)	11/29 (목)	11/28 (수)
국고채 수익률(3년)			2.84	2.84	2.84	2.83	2.83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31	3.36	3.37	3.36	3.36
원/달러 환율			1,083.40	1,083.10	1,082.90	1,084.10	1,086.50
CALL금리			2.77	2.72	2.73	2.72	2.71
주식형(국내)			-	692,981	692,675	692,742	692,034
주식형(해외)			-	266,639	266,925	267,177	267,422
채권형			-	467,472	465,950	465,734	467,085
고객예탁금			-	179,080	167,361	170,065	169,290
고객예탁금 회전율			-	28.02	37.27	39.21	33.30
순수예탁금 증감			-	8,627	-1,796	-2,022	157
미수금			-	1,138	1,201	1,208	1,041
신용잔고			-	42,925	43,140	43,064	43,169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